

전세계 8200만 명 시청 '오징어게임' 벼락스타 정·호·연 인터뷰

“팔로어 1200만 세계적 인기 실감 안나”

“새터민 슬픔 공감하려 캐릭터 일기
아직 만족을 말하기엔 경험 부족해
모델대전 영상 재조명 씩씩함도
해 보고 싶은 역할들이 정말 많아
'새벽' 만나고 남을 위한 삶도 생각

“나와 동생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
말했던 아빠는 국경을 함께 넘다 그만
총에 맞아 쓰러졌다. 아버지를 남겨둔
채 앞만 보고 도망쳐야 했다. 눈물이 앞
을 가렸지만, 뛰고 또 뛰어아만 했다.”

배우 정호연(27)은 작년 2월 일기에
그렇게 썼다. 이후 한동안 일기를 쓰며
10대 후반 새터민 소녀의 아픔을 가슴에
품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그
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싶었다. 관
련 내용을 좀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동생만 데리고 겨우겨우 한국에 도착
했지만 생활은 팍팍했다. 동생은 잠시
보육원에 맡겼다. 엄마를 탈출시키기 위
해 적지 않은 돈을 브로커에 건넸지만
사기를 당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결국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게임을 택
했다. 목숨값 1억원을 담보로 생존의 극
한상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정호연은 겪지 못했던 참담한 경험을
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겁나던’
때 일기를 썼다.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창
이었다. 이를 통해 드러낸 새터민 소녀
의 신산한 삶. 눈가에 가득한 기미와 우
울하면서도 냉소적인 표정은 아픔을 실
감케 한다.

보는 이의 실감은 정호연에게 일약 세
계적 명성을 안겨주고 있다. 17일 공개
이후 “28일 동안 8200만명 이상이 시청”
(미국 경제지 포춘)할 만큼 전 세계적인
시선을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또 다른 주역 이
정재·박해수·위하준과 함께 미국 지상
파 채널 NBC의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
쇼’에도 초청돼 7일 현지 시청자를 만나

게도 됐다.
정호연은 2010년 모델로 데뷔해
2013년 온스타일의 ‘도전! 슈퍼모델 코
리아’ 시즌4로 얼굴을 알린 뒤 꽤 인정을
아왔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세계적 브
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며 “성공적인 경
력”을 쌓았다. 그 속에서 “경력이 하나
둘 떠나가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럼 난 무
엇을 할까 고민”했다.

“고민 속에서 책과 영화를 보며 나도
저런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연기
개인 교습을 받았다.”

●“두 발 땅에 잘 딛고 서자”

그러다 지난해 초 기대는 하지 않고
‘오징어게임’ 영상 오디션에 응했다. 일
기도 그때부터 썼다. “너무 긴장돼 ‘ibun
들(심사위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기하
는 순간이구나’하며 몰입했다”는 그는
출연 여부를 떠나 행복했다고 돌아킨다.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40만명이었던 SN
S 팔로어가 최근 1200만명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인 인기라 할 만하다.

“실감나지 않는다. SNS를 통해 팬아트
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다. 전 세계 사
람들이 각자 스타일로 작품을 사랑해주
는구나 느낀다. 그래도 체감은 아직...
‘오징어게임’에 함께 출연한 박해수 선배
가 ‘두 발 땅에 잘 딛고 있자’고 말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히 살아가자’ 여긴다.”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만족...? 만족?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난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도와줘
서 완성됐다. 처음 촬영할 때 세
트의 규모가 신기했다. 상상하
기로는 스태프가 많겠군 했
는데 그보다 더 많았다. 한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많
은 사람들의 노력과 에너지
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
는, 어렵고 값진 일구나
생각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기자 정호연이 연기 데뷔작인 넷플릭스 ‘오
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며 열렬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미국 NBC 인기 오디션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 결승
까지 오른 세계태권도연맹(WTF)시범단. 사진제공 |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발전재단·한국체육학회 ‘2021 태권도 영상 공모전’ 개최

태권도의 묘미 알릴 30초~2분 이내 영상 창작물
11월 12일까지 접수...태권도 4개 단체 모두 참가



“태권도의 우수성과 묘미, 아름
다움을 영상으로 표현해보세요.”
아시아발전재단(ADF·이사장 김
준일)과 한국체육학회(회장 김도
균)가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국기
태권도’라는 주제로 ‘2021 태권도 영상(影像) 공모전’을 주최
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F), 국가원, 대한태권도협회는 공동주
최, 태권도진흥재단은 후원 기관으로 태권도 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태권도 알리기 한몫

스포츠동아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태권도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국기(國技)이지만 정작 태권도의 우수성과 묘미
를 제대로 모르거나 재미없는 운동이란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한 것이다. 실제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행사가 열릴 때나
반짝 관심을 끄는 등 중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체계적 보급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태권도계의 자성도 작용했다.

특히 아시아발전재단은 태권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김
준일 이사장이 내놓은 1억여 원으로 공모전을 처음 실시하게
됐다. 그는 플라스틱 밀폐용기류 연매출 4000억 원의 ‘락앤
락’을 창업한 기업인으로, 이 회사를 매각한 뒤 2016년 사재
247억 원을 출연해 아시아발전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아시아
저개발국 태권도 무상교육과 인도네시아 짜야찌아족에게 한
글 보급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로를 인정 받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내외국민 모두 참가 가능

살 속에서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태권도와 관련된 영
상을 30초~2분 이내의 고유 창작물로 자유롭게 제작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는 △잠자는 태권도 △뜨거운 태권도 △함께하는 태
권도 등 3개 분야로 실시한다. ‘잠자는 태권도’는 태권도를 소
재로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 ‘뜨거운 태권도’는 태권도
의 우수한 기량을 표현한 영상, ‘함께하는 태권도’는 다문화
가정, 세대간,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태권도를 주
제로 영상을 표현하면 된다.

공모 관련 정보는 아시아발전재단(www.asiadf.org)과 한
국체육학회(www.kahperd.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신
청서와 영상을 이메일(2021ucctkd@gmail.com)로 11월 12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11월 26일 시상식 및 태권도 포럼

주최 측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26일 태권도 단체가 참
가하는 포럼 행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한다. 대상 1팀(500만
원), 최우수상 3팀(분야별 300만 원), 우수상 3팀(/ 200만 원),
장려상 8팀(/ 50만 원) 등 총상금 2400만 원을 시상한다. 문
의 한국체육학회(070-7863-8173).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